

화학물질 유출시 대피요령

-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우의나 비닐로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수건,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코, 입을 감싸고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 화학사고로 발생한 독성 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창문 등을 닫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에어컨, 환풍기 등)의 작동은 중단해야 합니다.
- 만약 자동차를 타고 사고현장을 지나게 된다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비눗물로 샤워를 철저히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Q&A

Q: 화학사고 발생시 대피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까?

A: 화학물질이 흡수되는 경로는 입, 호흡기, 피부입니다. 따라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일 좋은 조치는 화학사고 발생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직접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우의나 비닐을 착용하고, 수건, 마스크, 장갑 등을 이용하여 코, 입 등을 감싸고 대피한 후 안전한 곳에 와서는 새 옷으로 갈아 입으셔야 합니다. 옷에도 소량의 독성물질이 묻어 있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Q: 평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에 대한 응급조치 정보 등은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A: 화학사고응급대응정보시스템(<http://ceis.nier.go.kr>)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http://kischem.nier.go.kr>)에서 관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학유해물질(독성가스) 누출시 국민행동요령

● 누출 발견시 행동요령

- 주위사람에게 전파하여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 누출지점에서 벗어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 가능한 높은 지대 또는 지역으로 대피한다.
- 가까운 경찰서(112) 또는 소방서(119) 등으로 신고한다.
- 누출된 독성가스는 흡수·이송설비를 가동하여 중화설비로 보내 중화 조치한다.

● 인체 응급조치 요령

독성가스 흡입시

- 대량으로 흡입한 경우는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입과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은 실시하지 않는다.
환자를 통풍이 잘되는 장소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피부에 오염되었을 시

- 환부를 다량의 물로서 세척한다.
- 암모니아에 오염된 경우는 레몬과즙, 2%초산용액, 2%붕산용액을 사용하여 세척한다.
- 염소가스에 의해 오염된 경우는 연고나 바르는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Q&A

Q: 화학물질이 발생했을 때?

A: 첫째, 누출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이웃에게 알립니다.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대피방법: 누출장소 보다 낮은 곳으로 대피
- 적용가스: 암모니아(NH₃), 시안화수소(HCN), 불화수소(HF), 염화수소(HCl) 등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대피방법: 누출장소 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
- 적용가스: 염소(Cl₂), 아황산가스(SO₂), 브롬화메탄(CH₃Br), 포스겐(COCl₂) 등